즉시 배포용: 2016년 6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입법의원들에게 이번 회기 쟁점사항의 종결에 대한 서한을 발송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입법의원들에게 이번 회기 쟁점사항의 종결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서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6월 13일

뉴욕주 입법의원님들께:

올해의 정치 환경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힘들고 까다로웠습니다. 뉴욕주와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불만과 미래에 대한 갖가지 불확실성을 낳은 세계의 불안정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교착 상태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입법부는 근대 역사 상 최대 예산 중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70년 만에 이뤄진 최대 중산층 세금 감면에서 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인 최저 시급 15달러, 미국 최강의 유급 가족 휴가 계획, 정부 지출 억제, 그리고 뉴욕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1,000여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올해의 예산은 뉴욕주 양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옛 회의론자의 속담에 따르면, “잘했어, 그런데 넌 최근에 나를 위해 무엇을 했지?” 우리는 현재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수백만 명의 뉴욕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입법심의회 중 하나를 마무리할 야심찬 아젠다를 마무리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헤로인 전염병과의 전쟁;
2. 유방암 검사 및 치료 접근성 증대;
3. 종합적인 윤리 개혁안 통과;
4. Citizens United와의 전쟁;
5. 철도 교차로 안전성 개선
6. 알코올 음료 통제법 정비.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압니다. 또한 해결방법도 압니다. 미국에서 뉴욕이 다른 주와 차별화되는 점은 난관을 물리치고 뉴욕주민들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뉴욕주를 위해 일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갈 시간이 한 주나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뉴욕주에게 자랑스럽게 안겨줄 수 있는 기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사 ANDREW M. CUOMO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